노사협의 통해 전략상품 선정

1/4분기 노사협의회서 상품판매 감시기구 설치 논의키로

노동조합은 상품판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마케팅기획본부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 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을 노력을 해왔다.

현재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내용은 강제 판매의 가능성이 있는 목표할당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전략적 상품으로 메가패스, 네스팟, 스마트카드 3종의 상품을 선정했다.

12일 사측이 전략상품선정을 위한 상품설명회를 열자 노동조합은 상품판매 대책기구 설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략상품중 메가패스는 전년부터 시범 운영중인 상품판매 TFT(전담팀) 및 외부 유통망 중심으로 판매토록 했다. 또한 네스팟은 노트북, PDA 등 단말기 판매 매출을 전략상품 평가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매출만을 평가하기로 해 서비스 개통 부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카드는 사업시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입 및 변경시 1건당 5,000원 수준을 지급키로 협의 중에 있다.

또한, PCS 및 비즈메카는 전략적 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PCS는 지사별로 차등되는 보조금을 일원화하고 영업직 및 비영업직에 대한 판매보상금과 단말기 교체에 따른 보상 등의 세분화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비즈메카는 기존의 허수 가입자 목표를 제외하여 580억 매출 목표만 부여했다.

그리고 상품판매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대책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곧 실시될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상품선정과 대책기구 설립은 지난 12일 사측이 노동조합에 전략적 상품판매 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상품 선정의 필요성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현업의 조합원들이 상품판매로 인한 조합의 고충이 심각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 상품 논의는 불가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현행 상품판매의 대책으로 상품판매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합동 대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 설 >

어처구니 없는 인사 · 보수규정 개악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사측이 지난 12월 31일 개정한 인사.보수 규정은 한마디로 회사측 마음대로 사람을 짤랐다, 붙였다하겠다는 것이고, 임금도 마음대로 줄여 주고, 제대로 주고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엿장수 마음대로의 규정이다.

규정 내용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회사 편의대로 직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3항을 살펴보면 그 의지는 더 노골적이다. 사장의 인력관리상 필요할 경우라고 한다. 그들에게 임금도 삭감해서 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장 마음대로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보면서 낡은 전제군주시절 "왕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도대체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 이런 규정이 저항없이 통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경영진의 낡은 노사관에 대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써준 전위원장과 사무처장이라는 자의 사고이다. '다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닐 줄 알았다'.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숨기려 들고 있다. 이런 자들을 노동조합 대표로 인정해준 내 손가락이 원망스럽다. 망치로 손가락을 짖이기고 싶은 심정이다.

자, 이제 과거의 음모적이고 파행의 노사합의 과정에서 냉정히 되돌아 보자! 투명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사측에서는 스스로 이런 합의에 의존해서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를 시행하려는 태도를 거둬 들여야 한다. 다시 정정당당하게 제대로된 집행부와 재 논의해야 한다. 잘못을 알고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 것은 더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

또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오류에 대해 명명 백백 밝혀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잘못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의 합리적인 판단, 노동조합의 과거 잘못을 끊으려는 의지가 실현되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민영 KT다운 대등한 노사관계,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황효창 (강남지방본부 복지국장)

문화산책

틱낫한과 그의 책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 명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베트남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Thich Nhat Hahn) 승려가 방한, 20일동안 체류한다. 베트남 출신인 틱낫한 스님(77)은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의 2대 '영적 스승'으로 꼽히는 선승이다.

틱낫한은 남방불교가 민족내부의 분쟁과 제국주의의 탄압 등의 영향을 받아 탄생시킨 이른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은 초교파적 입장에 서있다.

남베트남의 디엠정권에 이어 베트남전쟁 당시 반전운동, 사이공측의 탄압에 대한 저항 등으로 귀국이 금지돼 1973년 프랑스로 장기 망명하게 됐다. 이후 그는 서양에 불교적 평화.자비의 사상을 전해오다 1982년 보르도 인근에 명상공동체인 '플럼 빌리지(plumvillage:매화마을)'를 창설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한 수행을 세계인들에게 본격 전파하기 시작했다.

'영적인 오아시스'로 불리는 플럼 빌리지는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 남방불교의 '위파사나'를 대중화한 수행으로 일반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틱낫한 스님) 플럼 빌리지 수행의 요체는 '늘 깨어있기'(mindfulness)'를 강조하는데 있으며 명상과 호흡은 거기에 이르기 위한 두 길이다.

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내안에 있다 (명진출판/진우기 역)

– 신간 『힘(POWER)』은 틱낫한의 방한에 맞춰 출간된 기획상품이다. 틱낫한의 핵심사상인 깨어있는 마음, 즉 '마인드풀니스(mindfullness)' 사상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힘' 키워드로 쉽게 풀어썼다. 물론 여기서 힘은 현대인이 떠받드는 권력이나 금력이 아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는 진정한 힘. '아침 햇살에 피어난 한송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힘',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그런 힘을 일컫는다.

화 (Anger) (명진출판/최수민 역)

– '화'는 화를 '마음의 씨앗'으로 본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 사랑 같은 긍정의 씨앗과 미움 절망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평상시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 지는 바로 자신에게 달렸다. 특히 현대 사회는 화나는 것 투성이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출근시간 전철 안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난다.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일 때문에 일상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까. 물건을 내던질까. 참기만 할까. 틱낫한은 어느 것도 해결책이 아니며,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 자책하기 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틱낫한의 평화로움 (열림원/류시화 역)

– 틱낫한이 오랜 명상 끝에 깨달은 '미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인에게 슬픔에게도 미소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인간은 슬픔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다. 미소는 왜 지어야 하는가. 저자는 명료하게 말한다. "한 아이가 미소짓는다면, 한 어른이 미소짓는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소지을 수 있다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영향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평화 운동이다."

이밖에 틱낫한의 사랑법(나무심는사람/이현주 역), 부디 나를 참이름으로 불러다오(두레/이현주 역), 귀향(모색/오강남 역),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한길/최혜륜 역),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나무심는사람/이현주 역) 등 많은 저서들이 번역 출판돼 있다.

가족과 함께

새봄맞아 전국 '들썩'

피곤하다며 주말마다 '방콕'신세를 못벗어나는 가장들. 기지개를 켜고 나른해지는 몸을 추켜세워보자. 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뿐만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다. 물론 조금만 서두른다면 돈안들이고 즐길 수도 있다. 자 볼펜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같이 두런두런 올 상반기 축제 참가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3월 29일 ~ 4월 3일 < 한국의 술과 떡잔치>

– 경북 경주 / 054-779-6396 / www.festival.or.kr

올해로 6회째 열리는 한국의 술과 떡잔치는 전국의 전통술과 떡 뿐만 아니라 수십종의 다양한 도구와 자료전시, 그리고 시음과 시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떡메치기, 가래떡 썰기, 화전만들기, 누룩디디기, 술이름 맞추기등 참여행사도 풍부하며 행사와 함께 경주의 역사유적지를 둘러본다면 뜻깊은 여행이 될 것이다.

4월 3일 ~ 4월 6일 < 영암왕임문화축제>

– 전남 영암 / 061-473-1878 / www.wangin.org

왕인문화축제의 주행사인 왕인박사 도일당시의 행렬(백제문양 만장단, 천자문 만장단, 백제장수와 병사행렬, 왕인박사 행렬, 백제장인행렬, 백제왕의 행렬, 일본성덕태자와 사신 행렬)을 재현한다

4월 26일 ~ 4월 28일 <이충무공탄신기념 온양문화제>

– 충남 온양 / 041-540-2544 / www.onyangfestival.co.kr

무과별시 재연, 거북선 해전놀이 및 노젓기, 전술비연 제작과 날리기 등 볼거리를 비롯 이기회에 아이들에게 아빠의 연만들기 솜씨를 자랑할 수 있다.

4월 16일 ~ 4월 19일 < 진도영등축제>

– 전남 진도 / 061-540-3133 / www.jindo.jeonnam.kr

영등축제의 전설을 재현하는 영등살놀이(뗏목놀이, 용왕제, 뽕할머니 만남기원, 바닷길 대영합회, 뽕할머니 씻김, 만가, 뽕할머니 제사)와 진도민요 민속공연(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씻김굿, 다시래기, 만가, 북놀이,한춤, 산노래, 판소리, 남도잡가 등) 등의 공연이 있고 방문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매기체험(직접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잡음), 조개잡이체험, 바닷길 걷기 등이 있다.

5월 1일 ~ 5월 6일 < 한산모시문화제>

– 충남 서천 / 041-950-4016 / www.sochon.chungnam.kr

98년 제 10대 문화관광축제 지정, 2000년도부터는 상반기 제 6대 집중육성축제로 지정받았다. 올해 한산모시 문화제에서는 세계 섬유인 공예전, 모시길쌈 과정 체험, 모시입어보기 등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5월 4일 ~ 5월 9일 <남원춘향제>

– 전남 남원 / 063-620-6544 / www.namwon.chonbuk.kr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제는 문화의 시대, 사랑과 희망의 세기를 상징하는 「세계 사랑의 축제」로 각종 사랑예술제와 창무극 춘향전, 춘향국악대전, 전국판소리명창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춘향선발대회, 춘향일대 재현전통길놀이, 전통목기축제, 그리고 용마놀이, 남원농악 등 남원의 전통민속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펼쳐진다.

5월 4일 ~ 11일 <함평나비축제>

– 전남 함평 / 061-320-3224 / http://www.inabi.or.kr

함평나비 축제는 나비와 곤충 등 자연을 소재로 마련된 친환경 축제로 유명하다. 1,000만평규모의 자운영꽃과 유채꽃 물결이 봄의 기운을 한층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꾸라지잡기체험, 양서파충류 자연학습, 누에일대기 학습, 천연염색체험, 전통가축돌이체험 등 자녀들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해 눈길을 끈다.

5월 7일 ~ 5월 11일< 대구약령시축제>

– 대구 / 053-429-2562 / www.herbmart.or.kr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일대(700m)는 한의원과 한약방, 약업사, 제탕·제환소, 제분소, 인삼사 등 한방관련업소가 350여 개소나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옛날부터 약전골목이라 불려왔다. 약전골목에서 벌어지는 약령시축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령시 보존과 한의약문화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해마다 한방문화축제를 약령시개장행사로 개최해 오고 있다.

5월 28 ~ 6월 1일 <춘천국제마임축제>

– 강원 춘천 / 033-250-3541 www.mimefestival.com

춘천마임축제는 국내유일의 마임축제로 이미 자리메김 하고 있다. 현재 춘천마임축제는 공연과 난장이라는 두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공연중심의 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카니발식 요소를 삽입, 근처 고슴도치섬 일대를 주축으로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5월 8일 ~ 11일 <하동야생차 축제>

– 경남 하동 / 055-880-2341 / www.hadong.go.kr

하동은 신라시대 대렴공이 차씨를 가져와 쌍계사 주변에 제일먼저 심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 재배지로서, 그 역사성과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소재로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매년 전국 차인들이 함께하는 차문화축제, 관광지역축제. 복합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 민주노총 파견(정) 대의원

지재식, 김해관, 정흥곤, 김화식, 안창식, 허 진, 차완규, 강재구, 류춘용, 백관기, 유대종, 김영삼, 강인석, 강세홍, 김배정, 조규상, 손승옥, 유덕상, 김호선, 김태호, 문순홍, 이현광, 김성재, 김병탁, 이용각, 김순근, 김 신, 정윤모, 김근주, 임종대, 서철용, 남기평, 이창환, 권혁웅, 고흥관

▶ (후보) 대의원

이호우, 이상석, 김성수, 유재권, 조중오, 서광원, 한광용, 고재만

▶ 공공연맹 파견 대의원

중앙본부

지재식, 김해관, 정흥곤, 양정우, 한호섭, 김화식, 안창식, 허 진, 차완규, 최광수, 박세훈, 강재구, 손승옥, 류춘용, 민재홍, 백관기, 유대종, 김영삼, 강인석, 강세홍, 김배정, 조규상, 이수경

강북지방본부

김태호, 유경규, 문순홍, 정윤길, 김순영, 윤준상, 한정화, 구자철, 이종명, 김용위, 박용열, 이복만, 한명희, 윤삼섭, 이희창, 송정길, 박종국, 이효순, 이연옥, 홍익표, 이영구, 최용기, 진병태, 김창규, 고권석

강남지방본부

이현광, 한창섭, 김성재, 최영곤, 손종범, 조성명, 황효창, 이학래, 남경우, 나경택, 유정규, 유영조, 오은호, 박노일, 김연대, 배문서, 신양호, 신성기, 김종윤, 정우필, 이찬익, 전영관, 정상철, 여상훈

서부지방본부

김병탁, 장화영, 이용각, 김희원, 김상곤, 최남권, 김준구, 김호선, 전용철, 조일환, 장경석, 김윤철, 김종기, 정지곤, 김기완, 금기정, 김영필, 김인관, 강복애, 고영민, 김회대, 김혁중, 문경노, 유종현, 김유종

부산지방본부

정윤모, 황성관, 이호우, 이호성, 임옥정, 김인제, 김채경, 박호근, 김기준, 임재식, 정정석, 이기학, 박정만, 강태기, 김명석, 정봉순, 김정명, 박진상, 강영식

본사지방본부

김순근, 허경욱, 김 신, 김용범, 황종욱, 홍성규, 엄인숙, 강정옥, 심교철

대구지방본부

김근주, 여성동, 이상석, 김창진, 이선희, 이영태, 김용규, 손창영, 배우일, 이규동, 석정규

충남지방본부

남기평, 조중오, 오원재, 서윤수, 김철재, 함세정, 이상철, 이현숙, 김명길, 정승호, 유종선

충북지방본부

이창환, 서광원, 복진경, 김석운

전남지방본부

임종대, 김천원, 김성수, 탁삼진, 정욱채, 류철웅, 김선정, 정영근

전북지방본부

서철용, 김현배, 유재권, 이경택, 이광욱, 신환균

강원지방본부

권혁웅, 한광용, 안승홍, 엄도열, 김국환

제주지방본부

고흥관, 고재만

상급단체

유덕상, 양한웅, 김세옥